

## [연합뉴스] <특집>재한화교-①임오군란 때 첫 이주

기사입력 2009-12-01 15:38 | 최종수정 2009-12-02 10:03

청나라 군역상인으로 들어와 130년 역사

(편집자 주 = 법무부가 최근 외국 국적의 한국인과 화교, 해외 우수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화교사회는 "개방사회를 향한 거보"와 "무관심" 등으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는 국적법 통과시 우리 사회에 적잖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교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한화교' 특집을 기획,① 임오군란 때 첫 이주 ② '복수국적' 반응 교차 ③ <인터뷰> 우췌빈 한성화교협회 감사장(完) 등 기사 3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그동안 너무 많은 설움을 겪었다는 생각에서인지 복수국적을 주겠다는 한국정부의 발표를 보고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쑤슈이 한성화교중학교장)

130년 재한 화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노라면 산업화로 소외된 유랑민(곡마단원)들의 삶을 고통→과멸→새로운 인생 설계 등으로 그린 소설인 한수산의 중편 '부초(浮草)'가 떠오른다. 동남아 등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현지 화교 대부분은 독자적인 상권을 형성하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은 예외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성화교협회의 한 간부는 "자장면 가게 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신세로 살아온 화교들이 적지 않다"며 "해방 전 10만명에 달했던 화교 인구가 현재 약 2만 2천명(실제

거주자 1 만 8 천명)에 불과할 정도로 쇠락했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에 화교사회가 형성된 것은 1882 년 임오군란 발발로 청나라가 4 천 500 명의 군대를 파견하자 군역상인들이 함께 따라와 관수동, 수포동, 남대문 일대에 포목점 등 화상 점포를 열게되면서부터다. 이들은 조선의 개항 후 인천에서 노무자 등으로 일했고 20 세기 초부터 요식업에 종사하는 화교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거쳐 우리 정부는 화교가 경제적인 실권을 쥐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왔다. 1961 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으로 화교들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한 데 이어 이듬해 2 월 화폐개혁으로 화교들의 쌈짓돈을 강제로 끌어냈다. 1973 년에는 '양곡 절약'을 구실로 중국음식점에서 쌀밥 판매를 금지하면서 중국음식점에서는 자장면을 주메뉴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직업이나 교육 정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 속에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온 배경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부동산 소유의 제한적인 허용과 영주권(F5) 발급 등 전향적인 정책으로 화교 신분 도 개선됐지만 "한국은 화교들이 정착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온갖 차별의 '고통'과 만보산 사건(1931 년)으로 대표되는 '파멸'의 과정을 겪어야했던 화교들은 재산권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수국적 허용 등 '새로운 인생 설계'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부초'의 주인공들이 걸어온 여정을 답습하게 된 셈이다.

민간신앙 활동의 장소(廟宇.묘우)로 화교들의 정신적 의지처 중 하나인

한국화교거선당(居善堂)문화회를 이끄는 빼커신(畢可信.57) 회장은 화교 수난의 역사를 ▲만보산(萬寶山) 사건' ▲제 2 차 화폐개혁 ▲차이나 타운 강제철거 등으로 설명한다.

#### ◇일제에 놀아난 만보산 사건

1931 년 5 월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 근교의 만보산(萬寶山) 삼성부(三姓堡)에서 조선 농민과 중국 농민 사이에 수로 개설 문제를 둘러 싸고 분규가 발생하자 중국 경찰이 개입, 조선 농민을 몰아냈다.

조선 농민들은 그러나 일경의 보호 아래 공사를 강행, 몇 차례 충돌 끝에 7 월 1 일 중국 농민 200 여명이 조선인이 만든 수로를 파괴하자 일본경찰이 출동, 중국 농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당시 일본은 만주침략의 길을 닦기 위해 언론을 조작, 양측의 충돌을 유도했는데 조선인들은 이 계략에 말려 신의주, 평양,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중국인(화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게, 식당 기물을 파괴하는 등 습격사건만 400 여 차례 일어났다. 당시 총독부 경무국 발표에 따르면 100 여명이 숨지고 190 여명이 다쳤다. 1930 년말 화교의 총인구는 6 만 9 천여명이었으나, 폭동과 그에 뒤이은 1931 년 9 월 18 일 일제의 만주침략의 여파로 중국으로의 귀환자가 속출하여 1931 년 말에는 5 만 6 천여명, 1933 년 말에는 3 만 7 천여명으로 급감했다.(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한겨레 21'.2001.3.13)

양필승 교수(건국대)는 만보산 사건을 "한국 화교에게 잊혀지지 않는 악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여전히 한국 화교의 국가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설명한다.

## ◇제 2 차 화폐개혁

제 1 차 화폐개혁(1952 년) 후 10 년 만인 1962 년 6 월 5.16 쿠데타 주도세력이 단행한 제 2 차 화폐개혁은 '비단이 장사 왕서방'으로 상징되는 화교들의 장롱 속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화교들 다수의 견해다. 뽀커신 회장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회고록에서 '환'표시 화폐를 10 분의 1 비율로 평가절하된 '원'화로 바꾼 긴급통화조치법은 화교사회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개발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던 이들은 음성자금을 장기 저축으로 유도,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삼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최대 피해는 보유 화폐 중 상당 부분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아픔을 겪어야했던 화교에게 돌아갔다.

## ◇차이나 타운 강제철거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저서 '서울 도심계획 이야기'에 따르면 1970 년 양택식 서울시장은 소공동과 서소문 일대의 도심지 정비를 명목으로 재개발사업을 벌였다. 당초 재개발 계획안에는 소공동에 화교회관을 짓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중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개발업체가 화교들의 토지를 고가 매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살던 화교들은 연희동, 왕십리, 영등포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뽀커신 회장은 "당시 개발업체가 호텔을 짓고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교들은 이에 크게 실망해 부자들은 주로 미국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대만으로 건너갔다"며 "화교들의 제 3 국으로의 이주는 이 때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의 강제철거는 화폐개혁과 토지소유 금지 등 각종 차별 정책에  
식상해 있던 화교들의 3국으로의 '엑서더스(대탈주)'를 촉발시킨  
사건이었다는 게 대다수 화교들의 견해다.

duckhwa@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02966>